



주행까지

들이대고 위협했으나 鄭씨가
『왜 이러느냐』며 범인의 팔
을 잡고 방황하자 鄭씨의 등
과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고
달아났다.

△서를 도둑질정찰서는 17
일 지난해 11월부터 33차례에
 걸쳐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
행을 저지르고 3천여만원어
치의 금품을 더금모금(18·무
식·서을 銅雀구 舍堂2층)등
10대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

벌법위반행위로 구속영장을
신청하고 달아난 元모금(18)
을 잡는 혐의도 수배했다.

정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
난 7일 밤 11시 40분경 서울永
登浦구新吉1동 金모씨(30·
여·회사원)집에 침입, 金씨의
언니(35)를 흉기로 위협한뒤
차레로 폭행하고 일화 17만엔
과 다이아몬드 등 모두 1백
8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
달아났다는 것.

89. 1. 17
도

5共비리 수사전모 檢察寺 來週初발표

전찰 5공비리특별수사부는
전청의대경호심장 張世東씨
(53)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번
주내 끝내 뒤 다음주 말경 5
공비리수사결과전도를 발표
할 예정이다.

전찰은 일해재단기금강제
모금등과 관련한 張전청의대

이들은 이예앞서 같은날
오후 3시경 서울九老구開峰
3동 李모씨(45·회사원)집에
침입, 집안을 지기고있던 李씨
의 딸(14·여중1년)과 친구
C양(14·여중1년)을 폭행하
고 서랍을 뒤져 현금 2만 4
천원과 금반지등을 빼앗는등
지난해 11월초부터 지금까지
모두 33차례의 범죄를 저지
르며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
을 빼앗은 혐의다.

경호심장의 구체적혐의사실
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전찰은 18일경 일해재단기
금조성을 주도했던 현대그룹
명예회장 鄭周永씨를 소환조
사한뒤 張전청호심장을 조사
키도했다.

전찰은 그러나 張전청호심